

음성학과 음운론의 관계

신 의 성

트루베쯔코이(Trubetzkoy)의 음성학과 음운론의 엄격한 구별은 드 소쉬르(de Saussure)의 parole(말)과 langue(언어)의 구별과 일치한다. 트루베쯔코이에 의하면, 음운론은 langue의 소리의 학문이고, 음성학은 parole의 소리의 학문이었다. 그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은 것이 전통언어학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음운론만이 언어학에 속하는 학문이고, 음성학은 차라리 생리학과 음향학에 환원될 수 있는 자연과학에 속하는 학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트루베쯔코이의 설에 의하면, 음운론은 소리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음성학은 소리의 순수한 현상학적인 연구이다.

트루베쯔코이는 일반음성학(말소리의 생성 및 말소리의 음향적 성질을 연구하는 일반 물리학)과 특정언어의 음성학(Bloomfield의 음운론 또는 실용 음성학)을 구별하지 않았다.

트루베쯔코이는 음운론과 음성학의 준별을 주장했지만, 음성학 없이는 음운론이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음운론은 소리의 실질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리의 조음적 음향적 성질을 모른다면, 음운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트루베쯔코이의 음운 연구의 출발점은 항상 음성학이었다.

트루베쯔코이에 의해서 정해진 구별은 미국의 음성학과 음운론의 구별과도 합류되어 전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 구별을 받아들

이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학을 말소리의 물질적인 실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음운론을 말소리의 형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음성학은 언어학을 위한 보조과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 하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언어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랑그만이라는 드 쏜쉬르의 생각을 금과옥조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트루베즈코이의 구별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음운론과 음성학의 엄격한 구별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가 예스페르센(Jespersen)이었다. 그는 음운론과 음성학이라는 양분야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운론적인 관점이 참신하다는 것을 부정했다. 그는 음운론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음성학자들이 기능적 음성 대립과 비기능적 음성 대립을 구별했다고 그의 논문(Linguistica: Selected Papers, Copenhagen-London, 1933, p.210-14)에서 지적했다. 만약 음성학이 말소리의 생성 및 음향학적 성질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고 음운론이 말소리의 기능적 대립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버려, 비기능적 음성대립의 연구가 두 학문(음운론과 음성학)중의 어느 학문에서도 소홀이 된다면 두 학문사이의 틈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트루베즈코이처럼 음운론과 음성학을 구별한다면, 우발적, 비기능적인 것과 항구적, 기능적인 것의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음성학과 음운론 어느 학문에도 귀속되지 않는 중간영역이 생겨난다. 이 중간영역은 음운론과 음성학중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연구가 소홀히 되기 쉽다. 이 중간영역이 소홀하게 됨으로써 음운론과 음성학의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음운 체계의 연구 영역과 순수 음성학의 영역사이에는 중간적인 음성연구의 큰 영역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랑그와 빠롤이 접촉하여, 그 결과 두 개의 음성과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될 영역이 존재한다. 언어에는 "결합변이음"이외에도 많은 항구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통적인 음법 또는 관용을 형성하고 있지만 변별적 음운대립에는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들은 비기능적이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고양 이레리말의 [ts]와 [dz], [s]와 [z] 사이의 관용적 대립이다. 이 관용적 대립은 앞에서 말한 중간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용적 대립은 기능적인 것은 아니지만 랑그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음성학은 빠롤의 소리의 측면만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냐하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랑그에 속하는 관용적 대립은 주로 음성학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빠롤의 소리의 측면만을 다루는 음성학은 언어학의 보조과학에 지나지 않는다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언어학이 아니라든가 하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이다. 음성학 자체를 언어학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예름스레우(Hjelmslev)였다. 이같은 예름스레우의 주장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의 언어를 다루는 경우에 우리는 codes를 토대로 하여 messages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messages를 토대로 하여 codes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예름스레우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중간적 영역(관용적 실현)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역

설하고 이 연구를 위한 새로운 학문 즉 관용음성학의 설정을 주장한 학자는 서독의 언어학자 코세리우 (Eugenio Coseriu) 이다. 그는 트루베즈코이가 음성학과 음운론 사이에 중간적 과학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음성학·중간적 학문·음운론을 빠를, 랑그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필자도 코세리우의 이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L A N G U E 1	
		LANGUE 2
구체적 언어활동	관용적 실현	기능적 체계
↓	↓	↓
alofonética	관용 음성학	음운론

alofonética에 대한 우리말의 적절한 번역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를 쓴 것을 사과 드리는 바이다.

관용적 실현은 "사회적 불변이체"로서 랑그에 속한다. 또한 추상을 표시하기 때문에 실질이 아니고 형식이다. 따라서 이것은 구체적 음성의 부류(class)이다. 구체적 대상의 부류가 있고 부류의 부류가 있다. 이것이 음소이다. 예를들면, 스페인말에 있어서 음소/b/는 어떤 경우에는 b으로 실현되고, 어떤 경우에는 b̄으로서 실현된다. b와 b̄는 "불변이체"이기 때문에 "형식"이다. 이들은 현실의 음성의 부류이고 음소/b/는 부류의 부류가 된다. "변이음"은 무한하게 존재하고 말을 할 때마다 새로 실현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언어적 행위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언어의 기술이 철저하게 되기 위해서는 비기능적인 불변이체의 연구가 중요하다. 이것은 비기능적이지마는 기능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양식을 표시하

고 있다. 이것의 연구가 소홀히 된다면, 기술이 특정 언어의 기술이 아닌 너무나 추상적인 체계의 기술이 될 우려가 있다.

"물질적" - "기능적"에 평행된다고 생각되는 도식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모든 체계에는 "실현의 관용"이 대응되기 때문이다. "관용"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물질적 음성의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현의 관용은 기능성에 의해서는 정의되지 않지만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화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양식을 형성한다. 이 중간영역에 의해서 음성학과 음운론이 분리될 수 없게될 뿐 아니라, 이 중간영역이 철저하게 연구됨으로써 음성학과 음운론의 연결이 더욱 긴밀하게 될 수 있다. 형식과 실질이 서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음성학과 음운론이 서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음성학과 음운론이 서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codes의 연구는 messages의 연구를 전제로 한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러나 말소리는 음소와의 관련에 있어서만이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음운론의 기초는 음성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르스텍우와 같은 글로시매틱스(Glossematics)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은 음운론을 음성학에서 분리하지 않는 구체적 음성을 연구하는 과학의 기초는 필연적으로 음운론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음성학은 음운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음운론은 음성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말을 바꾸어하면, 실질의 연구는 형식의 지식을 전제로 하고, 형식의 연구는 음성적 실질에 대한 언급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음성학과 음운론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것이다.

<< 서울대 인문대 언어학과 교수 >>

참 고 문 헌

Coseriu, E. (1952) *System, Norm und Rede (Sprache Strukturen und Funktion)*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Hjelmslev, L. (1953)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translated from the Danish, 1943, by F. J. Whitfield.) Bloomington, Ind: Indiana Univ.